



1946년 3월 창간 제 2709호

# 湖南新聞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14일 (음력 4월 10일) 화요일

## “보수단체 몰상식한 행동 처벌 근거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가 39년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보수성향 단체는 항쟁의 현장에서 집회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제39주년 5·18 기념일인 18일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단체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한 뒤 현수막을 들고 행진까지 별일 예정이다.

집회를 계획한 곳은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며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해마다 5·18의 뜻을 기리는 전야제와 낙을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 “왜곡 처벌법, 여야 싸우는 사이 논의 지지부진”

#### 5월 단체 “보수 몰상식 행동, 묵과하지 않겠다”

온라인 등에서 활발했던 5·18 왜곡이 항쟁의 중심지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방지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역사 왜곡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입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 참석한 5·18 유족 등이 스스로 일어나 불러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정권이 바뀐 이후 노래는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제창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폄훼는 더욱 노골화 됐다.

르게 기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 참석한 5·18 유족 등이 스스로 일어나 불러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정권이 바뀐 이후 노래는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제창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폄훼는 더욱 노골화 됐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씨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왜 저분(전두환씨)에게 시련을 주시는지”라면서 “광주에 내려와서 19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중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이다”고 밝힌데 5·18 유족의 분노를샀다.

군사령관은 이민원씨는 지난 2월8일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를 통해 5·18 북한 개입설을 또 다시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5·18 민

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진실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가 싸우는 사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5·18은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9주기 기념식 전까지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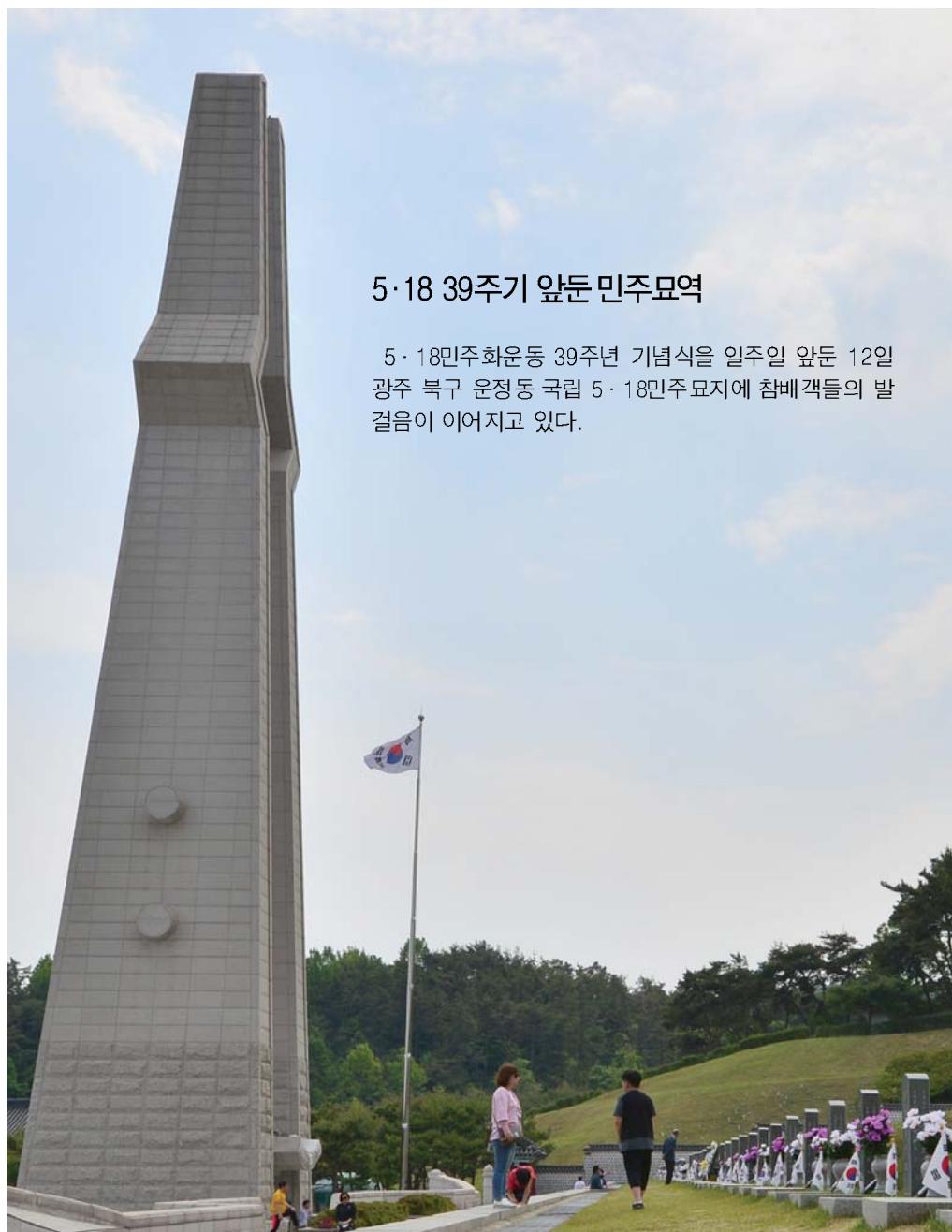
정춘식 5·18유족회장을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은 5·18을 이용해 보수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작전인 것 같다”며 “하지만 제삿날까지 침범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지만 도를 넘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보수단체의 몰상식한 행동을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 5·18 39주기 앞둔 민주묘역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앞둔 1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 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전남도,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화순 유치

2023년까지 4년간 213억 전액 국비

전남도는 국가 백신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화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관 사업자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선정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13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연구개발 및 컨설팅부터 임상, 승인까지 전주기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백신 제품화와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안정적 백신 수급과 백신 자급률 제고가 가능해지고,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의 화순백신산업특구 동반 입주도 크게 늘 전망이다.

전남도는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식약처 전남 분원으로 격상시켜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백신 연구 및

임상에 이어 국가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유치는 전남도가 그동안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전남 생물의약연구센터(R&D) ▲화순전남대병원(임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전임상) ▲국가미생물증진지원센터(시제품 생산) ▲㈜독십자(대량 생산) 등 국내 유일의 백신 원스톱 인프리를 갖춰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는 백신산업은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원료, 의료장비 등 제조업 분야로의 파급 및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 장성황룡강 길동무꽃길 축제

5.24.(금)~5.26.(일)

장성 황룡강변 일원 / 홍길동테마파크

개막식 5. 24.(금) 18:00 공설운동장

